

## 교총, '현장 중심 교육 입법·정책 실현 협력해 달라'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책·입법과제 발표회 참석해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안전법 후속 조치 시행 등 교육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거대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행사로 개최한 '제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교권 5법 통과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현장이 바라는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먼저 "현행 교원지위법은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 '반복성'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 규모는 소홀히 다루져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 번이라도 학교와 교원이 받은 피해가 큰 악성 민원은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현행법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며 "이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까지 수사가 장기화 돼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

고, 학생들도 교원 공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교총

강주호 회장을 비롯한 제40대 교총 회장단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제1·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총과 전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고 입법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김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촉구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성교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안전법 개정 따른 교원 보호 강화 후속 조치 시행 △교직 특성 반영한 교원 보수·처우 개선 정책 수립·심의를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요 과제로 요구했다. 김선 부회장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 교원 중심 교육 정책과 입법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한성민 기자

##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계약정원·학과 동계 직무연수

지난 15일부터 3일간 계약정원·학과 담당 실무자 대상 정기 직무연수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5일부터 17일까지 코모도 호텔(부산)에서 '2025년 계약정원·학과 동계 정기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학생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하는 제도이다. '계약정원'은 기존의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여 2023년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직무연수는 계약정원·학과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계약정원·학과 운영 대학 관계자와 지역 라이즈(RISE)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약정원·학과 활성화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과 함께 수상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유공 표창을 수상한 대구대학교의 경우, 대구·경북 기업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에 채용을 연계하는 동시에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학생 연구개발(R&D)

역량 배양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정오 학생은 '스마트웨어용 재활용 전도·신축성 복합사 개발에 관한 연구'로 한국산업정보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전도성 복합소재에 대한 연구 능력을 모두 보여줬다. 아울러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라이즈 체계 내에서 계약정원·학과가 지역 산업계가 원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더불어, 교육부가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의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그동안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해 온 계약학과와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하여 대학 입학부터 졸업생의 기업 채용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두호 기자

## 학술 생태계 활성화 위해 연구 지원 대폭 확대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이공 및 인문사회 분야에 총 1조 149억 원을 지원하는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2025년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11억 원이 증가한 총 5,958억 원으로 역대 최고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아, 신규 지원 과제 수를 총 2,700개로 증편했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멘토)의 지도·지원을 받으며 혁신·도전적인 개인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 단독

연구' 유형과, 비전임교원이 자체 역량 제고 계획을 통해 성장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비전임교원 유형'을 신설한다.

둘째,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지원하는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먼저, 2025년부터 '국가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글로벌랩' 사업의 대학 부설 연구소(100개)가 특성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연구혁신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셋째, 대학의 개별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혁신 지원'을 개편하여 과제당 연구비 지원 액수를 늘리고, 2인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하여 협력을 활성화한다. 이공 분야 내의 협

력을 통해 체계(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도전연구지원', 지역(비수도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방대학 연구자의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글로벌연구개발(R&D)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연구개발(R&D)지원'의 경우 국제협력 연구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부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호연구'도 지속 추진한다. 단, 신규교제는 국가가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사전에 지정하고 연구자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방식(Middle-up)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가금현 기자

2025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191억 원이며 이 중 일반 연구개발(R&D) 예산은 2,9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끊임없는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키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의 기초학문이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 주어야 하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다양한 학술연구가 현장에 안착해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 INDEX

- ▶ 1면 교육정책
- ▶ 2면 전국종합
- ▶ 3면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 ▶ 4면 전국교육
- ▶ 5면 [기획성기동 서산교육장
- ▶ 6면 전국교육
- ▶ 7면 전국교육
- ▶ 8면 전국종합
- ▶ 9면 전국종합
- ▶ 10면 오피니언
- ▶ 11면 오피니언
- ▶ 12면 전면광고(제8회 어르신책보내드리기)

교육타임즈

JUNG KWAN JANG

# 새해 건강은 정관장으로

✓기업선물 전문매장    ✓정관장제품 할인 행사  
(일부품목 제외)

✓전국 택배발송 041-663-0304

정관장 읍내점(기업은행 옆)

검색